

Report 28호 || 2021년 5월 27일

"한국인 사회의식 심층부석 보고서"

'공분'에 대한 국민의식 심층 분석

■ 우리 사회 및 정치인에 대한 느낌

- 국민들, 우리 사회 생각할 때 '화가 난다'
- 정치인 접할 때 가장 화가 나는 대상, '야당 정치인'
- 18~20대 남녀, '야권 차기대선후보'에 우호적
- _ 모든 지역에 걸쳐 '여권 차기대선후보'에 우호적

■ 각종 사건에 대한 '공분' 수준

- _ 국민들 가장 분노하는 사건, '아동대상 사건'
- 2030세대 : 남자보다 여자가 더 '분노'
- 4050세대 : 연령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분노'
- 60대이상 : 전반적으로 여성이 더 '분노'

■ '공분'에 대한 사회심리적 접근

- 국민들 분노하는 대상, 사회고위층일수록 강해
- 성/연령별 : 별 차이 없이 국민전체 의견과 동일
- 직업별 : 국민전체 의견과 동일한 양상
-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나보다 잘 사는 사람'에 더 분노
- 성/연령별, 이념별, 모두 국민전체와 동일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1년 5월 7일(금) ~ 5월 9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 본 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57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3.01%p

가 중 지 기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1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일러두기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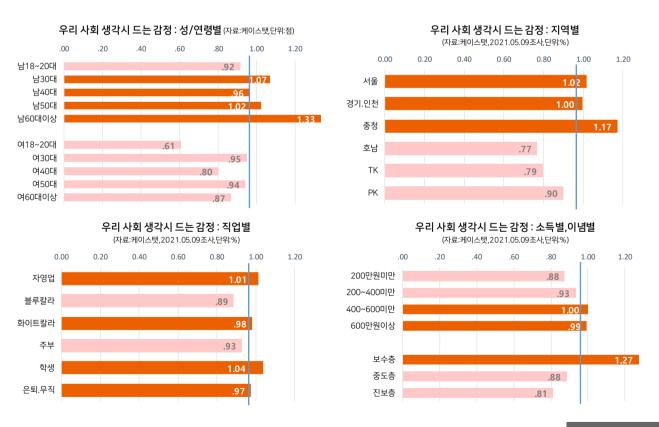
▶ 우리 사회 및 정치인에 대한 느낌

□ 국민들, 우리 사회 생각할 때 '화가 난다'

- 요즘 우리 사회를 생각할 때 드는 감정에 대해 질문한 결과. 국민들은 '화가 난다'고 응답함
- '별 느낌 없다' 0점을 중심으로 기분이 좋을수록 좌측 점수를 선택하고, 화가 날수록 우측 점수를 선택토록 한 결과임
- '화'가 나는 강도는 0점 ~ 3점을 기준으로 '0.96점'으로 나타나 아주 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화가 난다'고 응답했으며, 국민전체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한 계층은 △남자 3060세대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자영업, 화이트칼라, 학생, 은퇴,무직자 △400만원 이상 소득계층 △보수층 등임
- 아래 그림에서 파란색 선은 국민전체 평균인 0.96점을 의미하고, 국민전체 평균점수 보다 높은 계층은 진한 주홍색 막대로 표시함



Kstat Point

☑ 국민들이 우리 사회를 생각할 때 화나는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의미로 읽힘 ☑ 특히 남성, 수도권, 학생, 400만원 이상 소득층, 보수층 등이 '화가 난다'는 정도가 강해 불만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정치인 접할 때 가장 화가 나는 대상, '야당 정치인'

- 각종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정치인을 접할 때 드는 감정을 질문한 결과, 국민들은 모든 정치인에 대해 '화가 난다'고 응답함
- '별 느낌 없다' 0점을 중심으로 기분이 좋을수록 좌측 점수를 선택하고, 화가 날수록 우측 점수를 선택토록 한 결과임
- 가장 화가 많이 나는 대상은 '야당 정치인'으로 1.49점을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장관 등 고위공직 자'(1,39점), '여당 정치인'(1,38점) 등으로 조사됨
- 상대적으로 가장 화가 적게 나는 대상은 '여권 차기대선후보'로 0.84점이었으며, 다음으로 '대통 령'(0.87점), '야권 차기대선후보'(1.02점) 순으로 나타남



- ☑ 우리 국민들은 언론 등을 통해 보이는 정치인 모두에 대해 '화가 난다'고 응답, 우리 사회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정치 권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흥미로운 점은 이른바 '미래 권력'으로 불리는 차기 대선후보에 대한 '화남'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임
 - : 여권 차기대선후보는 0.84점으로 가장 낮았고, 야권 차기대선후보 역시 1.02점으로 세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함
 - : 이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다음 정권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임
- ☑ 그러나 여·야 차기대선후보 모두 '화남'의 범주에 속해 있어,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
 - : 지난 여론조사에서도 우리나라 정치현실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확인된 바 있음
 - : "우리나라 정치는 국민의 의견과 관심사를 대변하는 일을 잘하고 있다" 주장 동의도, 25%
 - : "우리나라 정치는 시대에 뒤떨어진 소수 특권층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주장 동의도, 71%
 -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13호『민주주의와 개인자유 국민의식 분석』참고
- ☑ 이러한 국민적 불만은 기성 정치권의 재편으로 분출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최근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과정에서 이준 석 전 최고위원을 비롯한 '신진 정치인'에 대한 선호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됨
 - :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6.11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로 선출되는지 여부를 떠나 정치권 재편에 대한 국 민적 열망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음
- ☑ 차기 대선후보들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여, '정치권 재편' 또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임
 - : 여야를 떠나 이러한 지점을 선점하는 후보가 대통령 선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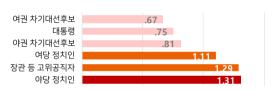
□ 18~20대 남녀, '야권 차기대선후보'에 우호적

- 성/연령별로 가장 화나는 대상으로 지목된 경우가 많은 대상은 '야당 정치인'으로 30대 남녀. 40대 남 녀. 50대 남녀. 여자 60대이상 등임
- 이에 비해 18~20대 남자는 '장관 등 고위공직자'가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18~20대 여자와 남자 60대이상은 '여당 정치인'으로 조사됨
- 가장 높은 점수는 남자 60대이상 '여당 정치인'(1.98점)이고, 가장 낮은 점수는 여자 30대 '대통 령'(0.48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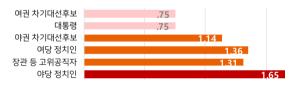
남자 18~20대, 언론 등 통해 정치인 접할 때 드는 감정(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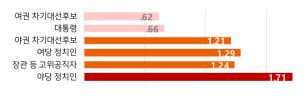
남자 30대, 언론 등 통해 정치인 접할 때 드는 감정(단위:점)



남자 40대, 언론 등 통해 정치인 접할 때 드는 감정(단위:점)



남자 50대, 언론 등 통해 정치인 접할 때 드는 감정(단위:점)



남자 60대이상, 언론 등 통해 정치인 접할 때 드는 감정(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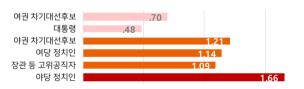
여자 18~20대, 언론 등 통해 정치인 접할때 드는 감정(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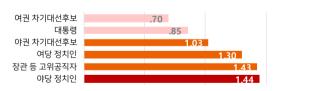
여자 30대, 언론 등 통해 정치인 접할 때 드는 감정(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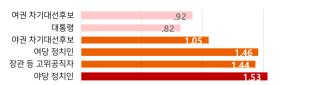
여자 40대, 언론 등 통해 정치인 접할 때 드는 감정(단위:점)



여자 50대, 언론 등 통해 정치인 접할 때 드는 감정(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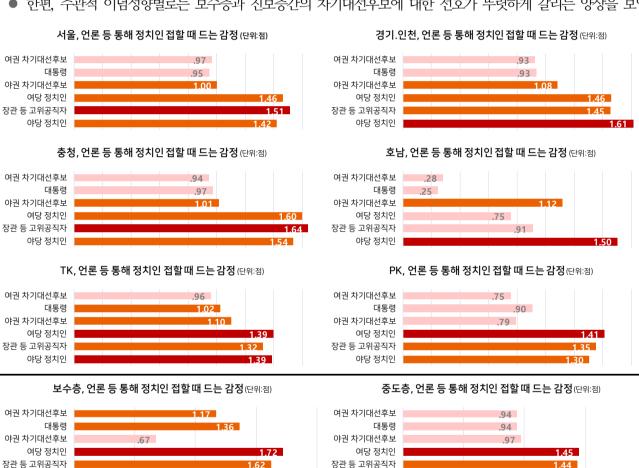
여자 60대이상, 언론 등 통해 정치인 접할때 드는 감정(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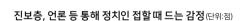
- ☑ 18~20대 남녀 모두에서 야권 차기대선후보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인 점이 주목됨
- ☑ 차기 대선은 세대대결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데, 전통적으로 여권 지지층이었던 20대가 부동층화되면서 캐스 팅 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 : 이전 선거에서는 [2040세대 여권 vs 60대 야권] 구도 속에 50대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면, 오는 대선에서는 20대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만큼 20대 표심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생탈전이 예상됨

□ 모든 지역에 걸쳐 '여권 차기대선후보'에 우호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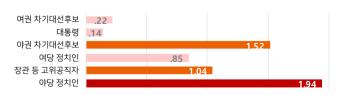
-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화나는 대상이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임
- 서울과 충청은 '장관 등 고위공직자'가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 경기 인천과 호남은 '야당 정치인', TK와 PK는 '여당 정치인'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함
- TK는 야당 정치인도 같은 점수로 '화가 난다'고 응답, 야당 정치인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차기 대선후보에 대한 점수가 다른 정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이 재현됨
- 세부적으로는 전 지역에서 여권 차기대선후보가 낳은 점수를 기록, 현 시점에서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주관적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과 진보층간의 차기대선후보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게 갈리는 양상을 보임



야당 정치인



야당 정치인



- ☑ 보수층은 야권 차기대선후보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고, 진보층은 여권 차기대선후보 점수가 가장 낮음
- ☑ 차기 대통령 선거는 세대대결 구도와 더불어 이른바 '진영대결' 구도가 중첩될 것으로 전망됨

▼ 각종 사건에 대한 '공분' 수준

□ 국민들 가장 분노하는 사건, '아동대상 사건'

-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사고와 관련, 각각의 사건·사고를 접할 때 어느 정도 화가 나는지 질문한 결과 모든 사건에 대해 2점 이상의 높은 수준의 '화가 난다'고 응답함
- '별 느낌 없다' 0점을 중심으로 화가 날수록 우측 점수를 선택토록 한 결과임
- 가장 분노 정도가 높은 사건은 '아동대상 사건'(2.73점)이고, 다음으로 '공직자 비리 사건'과 '유치원 아 동학대 사건'. '가족 대상 사건'이 동일한 점수(2.63점)로 뒤를 이음
- 다음으로는 '사회고위층 자녀특혜 비리 사건'(2.58점)과 '사회고위층 '갑질' 사건'(2.57점) 순으로 조사됨
- 한편, 상대적으로 분노 정도가 가장 낮은 사건은 '코로나 방역수칙, 미준수 사건'임(2,26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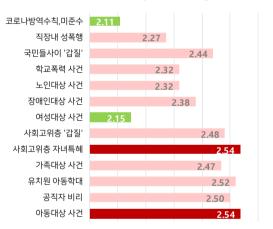


- ☑ 우리 국민들의 사회적 분노, 즉 '공분'을 요약하면, 우리 사회를 떠올릴 때 화가 나고, 언론보도 등에 나오는 정치인 을 볼 때 화가 나며, 각종 사건·사고 보도를 접하면서 또 화가 나는 상황임
 - :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공분'은 기성 정치에 대한 분노와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사건의 영향을 받으면서 축적되고 고 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정당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하지만, 현 수준의 사 회적 분노는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임
- ☑ 정신의학적으로 '분노'란 욕구좌절에 대한 반응이거나 생존을 위협하는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말해지는데, 현재의 높 은 수준의 사회적 분노는 결국 개개인의 욕구좌절과 생존에 대한 불안감의 집단적 표출이라는 분석임
 - : 욕구좌절은 계층상승의 사닥다리가 부러진 우리 사회 현실의 결과이고, 생존 위협은 빈부격차 확대와 심화된 불평 등 속에 끊임없이 불안감에 시달리는 삶의 반영임
 - : 우리 사회, 개인 노력으로 계층상승 이룰 수 있는지 여부, '없다' 72%(케이스탯 『2021년 3월 사회지표 보고서』)
 - : 우리 사회 공정성 여부, '불공정하다' 83%(케이스탯 『2021년 4월 사회지표 보고서』)
 - :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 여부, '불안하다' 70%(케이스탯 『2021년 5월 사회지표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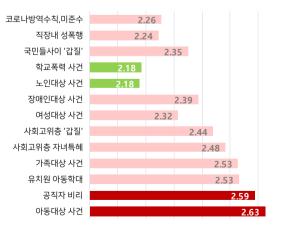
□ 2030세대 : 남자보다 여자가 더 '분노'

-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먼저 2030세대의 경우 전반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성의 분노 정도가 높은 특징 을 보임
- 분노 점수가 2.60점을 넘는 사건 수를 비교해 보면 남녀 간 분노 정도가 확연히 차이가 남
- 남자 18~20대 : 0개 / 여자 18~20대 : 6개
- 남자 30대 : 1개 / 여자 30대 : 5개
- 또한 가장 분노하는 사건(진한 빨간색 막대)에 대해서도 남녀 간 차이가 드러나는데. 여자 2030세대는 '여성대상 사건'에 대한 분노 정도가 매우 높은 데 비해 남자 2030세대에서 점수가 낮음
- 특히 남자 18~20대에서는 두 번째로 낮은 점수를 기록함
- 한편, 가장 분노하는 정도가 낮은 사건(초록색 막대)에는 '코로나 방역수칙, 미준수'가 많았고, 다음으 로 '노인대상 사건', '여성대상 사건', '학교폭력 사건' 등으로 나타남

남자 18~20대, 사건별 분노 정도(단위:점)



남자 30대, 사건별 분노 정도(자료:케이스탯,2021.05.09조사,단위:점)



여자 18~20대, 사건별 분노 정도(단위:점)



여자 30대, 사건별 분노 정도 (자료:케이스탯,2021.05.09조사,단위:점)



- ☑ 자신의 삶과 미래와 삶 영역별 불안도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높음(케이스탯 『2021년 5월 사회지표 보고서』)
- ☑ 남성 2030세대에 비해 여성의 높은 분노는 생존을 위협하는 자극에 대한 반응의 결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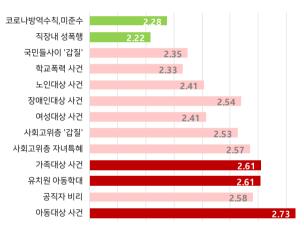
□ 4050세대 : 연령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분노'

- 4050세대의 분노 점수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더 '분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분노 점수가 2.60점을 넘는 사건 수를 비교해 보면 이러한 특징이 뚜렷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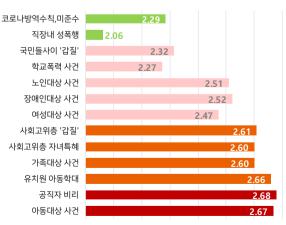
- 남자 40대 : 3개 / 여자 40대 : 4개 - 남자 50대 : 6개 / 여자 50대 : 8개

- 가장 분노하는 사건(진한 빨간색 막대)의 경우 40대는 남녀 모두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과 '아동대상 사건'이 기록함
- 이는 유치원 자녀 및 학령기 자녀가 있는 연령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 50대는 남성의 경우 '공직자 비리 사건'과 '아동대상 사건'이고, 여성은 '여성대상 사건'과 '아동대상 사건'임
- 한편, 가장 분노하는 정도가 낮은 사건(초록색 막대)에는 '코로나 방역수칙, 미준수'가 공통적인 가운데 남자 4050세대는 '직장 내 성폭행'이, 여자는 '국민들 사이 '갑질' 사건'이 낮은 점수를 기록함

남자 40대, 사건별 분노 정도 (자료:케이스탯,2021.05.09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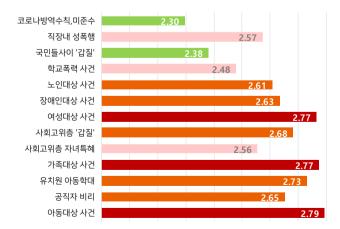
남자 50대, 사건별 분노 정도 (자료:케이스탯,2021.05.09조사,단위:점)



여자 40대, 사건별 분노 정도(자료:케이스탯,2021.05.09조사,단위:점)



여자 50대, 사건별 분노 정도(자료:케이스탯,2021.05.09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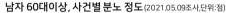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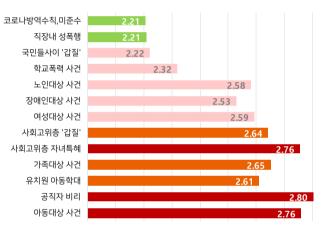
Kstat Point

☑ 4050세대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적 분노 수준이 높은데, 사회에 대한 불안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분노가 높 은 특징이 반복적으로 나타남

□ 60대이상 : 전반적으로 여성이 더 '분노'

- 60대이상의 분노 점수 역시 여성일수록 더 '분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분노 점수가 2.60점을 넘는 사건 수를 비교해 보면 분명함
- 남자 60대이상 : 6개 / 여자 60대이상 : 8개
- 가장 분노하는 사건(진한 빨간색 막대)의 경우 남녀 모두 '아동대상 사건'과 '공직자 비리'로 나타남
- 남자 60대이상은 '아동대상 사건'과 '사회고위층 자녀특혜 사건'이 동일한 점수를 기록함
- 한편, 가장 분노하는 정도가 낮은 사건(초록색 막대)에는 남녀 모두 '코로나 방역수칙, 미준수'와 '직장 내 성폭행'이 낮은 점수를 기록함





여자 60대이상, 사건별 분노 정도(2021.05.09조사,단위:점)



- ☑ 60대이상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적 분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모든 세대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분노'하고 있음
 - :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현실의 반영으로 보임
- ☑ 사회적 사건・사고에 대한 분노에 있어 주목되는 지점은 두 가지로, 첫째는 '코로나 방역수칙, 미준수 사건'이 가장 낮 은 분노 점수를 기록한 점이고, '여성대상 사건'에 대한 남녀 간 뚜렷한 차이임
- ☑ 코로나19로 인해 1년이 넘도록 일상이 정지된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방역수칙, 미준수 사건'에 대 한 분노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은 사회적 분노가 단순히 드러난 사건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는 반증임
 - :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분노의 근원은 개개인의 욕구좌절과 생존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임
 - : 사회적 분노를 떨어뜨리는 것은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법적 제재 외에 사회구조적 측면을 고려 해야 할 것임
- ☑ '여성대상 사건'에 대한 남녀 간 분노 수준의 격차가 큰데, 이는 여성의 피해의식 차원의 문제가 아닌 남성중심 사회 구조가 구축해 놓은 여성차별의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임
 - : 즉, 사회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에 남녀를 떠나 함께 분노하고, 함께 대처해야 할 사회 공동의 문제라는 것임

▼ '공분'에 대한 사회심리적 접근

□ 국민들 분노하는 대상, 사회고위층일수록 강해

- 동일한 잘못, 동일한 불법 행위라도 그 행위를 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분노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 "만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외부활동을 해 집단 감염을 일으킨 사건 이 발생했습니다] 그 대상이 다음 각각이라고 할 때 선생님은 어느 정도 화가 날 것 같으세요?"라는 질문 후 다섯가지 유형을 제시함
 - 1) 정치인, 고위 공직자, 대기업 CEO 등
- 2) 교수, 기업 임원, 전문직 등

3) 직장인, 자영업자 등

4) 비정규직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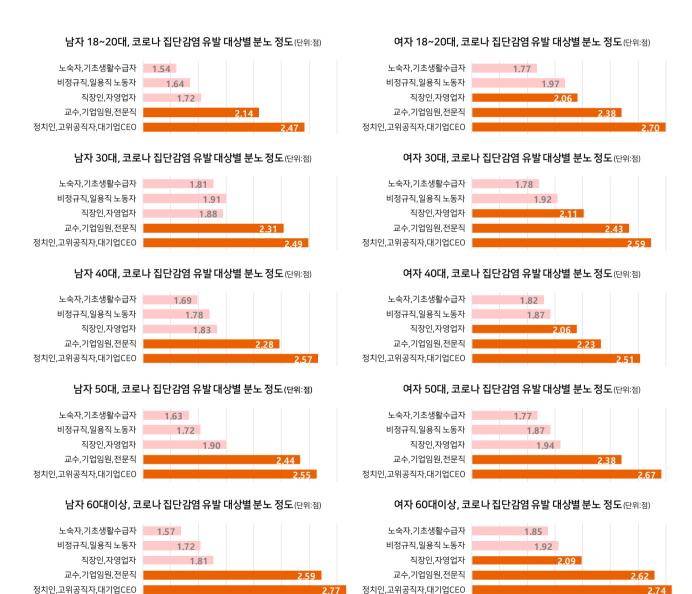
- 5) 노숙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 조사 결과 '정치인, 고위 공직자, 대기업 CEO 등' 사회고위층에 대한 분노 점수가 2.62점으로 가장 높 았고, 다음으로 '교수, 기업 임원, 전문직 등'이 2.40점으로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직장인. 자영업자 등'(1.94점). '비정규직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등'(1.83점). '노숙자. 기초생 활수급자 등'(1.72점)이 뒤를 이음



- ☑ 어떤 법적 처벌에 있어 동일한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어떤 사회적 지위와 배경을 갖고 있느냐와 무관하게 동일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통념이자 상식임
- ☑ 그러나 사회적으로 해를 끼친 행위에 대한 비난에 있어 우리 국민들은 해악을 저지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배경에 따라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즉, 사회고위층일수록 더 큰 비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됨
- ☑ 이는 사회고위층일수록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하고, 사회공동체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를 중시하기 때 문으로 분석됨
 - :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배경에도 여권 주요 인사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와 집주인으로서의 '갑질' 등이 크게 작동한 것으로 해석 가능함
 - : 또한 여권의 이른바 '내로남불'에 대한 국민적 분노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됨

□ 성/연령별 : 별 차이 없이 국민전체 의견과 동일

- 성/연령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성/연령에 걸쳐 국민전체 여론과 동일하게 사회고위층일수록 더 분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연령별로 분노 점수가 다소 다르고. 여성이 더 분노하는 경향이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사회고위증일 수록 분노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점은 동일함



- ☑ 사회고위층일수록 우리 사회에 대한 의무를 강하게 인식하고,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생각은 성/연령과 무관한 국 민적 상식인 것으로 보임
- ☑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은 장관 등 고위공직자 인선 시 도덕성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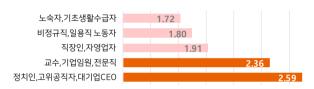
□ 직업별 : 국민전체 의견과 동일한 양상

- 직업별 응답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직업군에서 잘못을 저지른 대상이 사회고위층일수록 더 분 노하는 모습이 뚜렷함
- 직업별로 분노 점수가 다소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국민전체 의견과 동일한 양상임

자영업, 코로나 집단감염 유발 대상별 분노 정도(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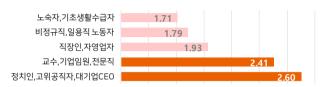
화이트칼라, 코로나 집단감염 유발 대상별 분노 정도 (단위:점)



학생, 코로나 집단감염 유발 대상별 분노 정도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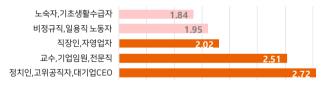
블루칼라, 코로나 집단감염 유발 대상별 분노 정도(단위:점)



주부, 코로나 집단감염 유발 대상별 분노 정도 (단위:점)



은퇴.무직, 코로나 집단감염 유발 대상별 분노 정도 (단위:점)



- ☑ 자신이 현재 속한 직업군이 잘못을 저지른 대상별 분노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 화이트칼라든, 주부든 상관없이 동일한 분노 경향을 보임
- ☑ 이는, 사회고위층에 요구하는 도덕적 의무를 판단할 때, 자신의 직업과 무관하게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 한다는 의미로 읽힘

□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나보다 잘 사는 사람'에 더 분노

- 앞서 상황과 동일한 상황인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고, 나와 비교해 어떤 수준의 사 람인지를 질문한 결과 국민들은 '나보다 잘 사는 사람'에 더 분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만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외부활동을 해 집단 감염을 일으킨 사건 이 발생했습니다] 그 대상이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화가 날 것 같으세요?" 라는 질문 후에 3가지 유형을 제시함

경제적 여건과 학력, 직장 등 면에서

- 1) 나보다 잘 사는 사람
- 2) 나와 비슷한 사람 3) 나보다 못 사는 사람
- 조사 결과 '나와 비슷한 사람'을 기준으로 나보다 못 사는 사람에게는 화를 덜 내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에게는 화를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남
-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은 1.61점으로 낯고, '나와 비슷한 사람'은 1.80점,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은 2.06점으로 높음



"경제적 여건과 학력, 직장 등 모든 면에서"

- ☑ 우리 국민들은 사회적으로 해를 끼친 행위에 대한 비난에 있어 사회고위층일수록 더 많은 비난을 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일 경우에는 자신보다 잘 사는 사람일수록 더 비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즉,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친 행위에 대한 비난은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로 보나, 나와 비교해서나 모두 상층일수록 더 강경하게 비난하는 태도를 갖고 있음
- ☑ 역으로 '나보다 못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임
 - :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 시 선별지원과 보편지원 논란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피해를 많이 본 계층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선별지급 여론이 더 높았던 것은 이러한 이유로 보임

□ 성/연령별, 이념별, 모두 국민전체와 동일

- 응답결과를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성/연령별로 분노점수가 다르지만 '나보다 잘 사는 사람'에 더 분노 하는 경향은 동일함
- 주관적 이념성향별로 살펴봐도 이러한 모습은 국민전체 여론과 같음



- ☑ 성/연령별로나 이념성향별로나 우리 국민들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나보다 못 사는 사람에게는 관용적이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에게 는 강경하게 책임을 묻는 모습임
- ☑ 이는 국민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상식이자, 사회규범인 것으로 보임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케이스탯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29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29호는

6월 10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

